

보도시점 2023. 10. 3.(화) 12:00 배포 2023. 09. 27.(수) 08:00

다문화 아동·청소년 교육기회 넓혀 미래인재로 키운다

- 내년도 다문화 아동·청소년 맞춤형 예산 568억 원 편성
- 학령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 138→168개소로 확대
- 다문화 학생 학교생활 적응 길잡이(교육부),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(고용부) 등 범부처 차원 지원 강화

□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는 2024년 다문화 아동·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 대비 346억 원(159%↑) 늘어난 568억 원을 편성하고,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에 집중 투자해나갈 계획이다.

※ ('23) 222억 원 → ('24 정부안) 568억 원

○ 이는 국정과제인 ‘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’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,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.

* 국정과제48: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,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
(주요내용) 학령기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

□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기초학습 지원, 정서·진로상담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해왔다.

○ 2022년 4,391명의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, 참여 만족도 또한 높았다. 다만, 참여 희망자수에 비해 모집 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현장의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.

- 부산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초학습 지원에 참여한 학부모는 “맞벌이로 자녀 학습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, 기초학습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가 수업에 재미를 느끼고 학교 수업에서 잘 몰랐던 부분을 복습할 수 있어 좋았다.”라고 했으며,

-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정서·진로상담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은 “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어려웠는데 강사님이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마음부자라고 말해주셔서 고민해보니 내가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좋아했던 그림그리기가 떠올랐다. 한 달 전부터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나중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.”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.

□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학습,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.

-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·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68개소로 확대하고, 사업대상도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. 또한 청소년기 정서·진로상담 역시 143개소로 확대한다.

※ 기초학습지원: 138 → 168개소, 총 67억원(+36억원) / 정서·진로상담: 113 → 143개소, 총 34억 원(+7억원)

-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(총 57억원(+ 22억원))한다.
-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,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* 지원(총 168억)도 신규 추진한다.

*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·중·고 자녀 6만여 명 대상 초등 연 40만원, 중등 연 50만원, 고등 연 60만원 지원 추진

□ 한편 교육부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길잡이(멘토링) 인원을 두 배로 확대(4천명 → 8천명, 총 156억 원(+ 89억원))하고, 고용노동부에서는 폴리텍을 통해 기술, 한국어 등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(2백명, 총 22억원)한다.

□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건전재정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”라며,

- “다문화 아동·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	책임자	과 장	송지은	(02-2100-6371)
		담당자	사무관	최선우	(02-2100-6372)
	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윤경	(044-203-6521)
		담당자	사무관	남윤철	(044-203-6522)
		담당자	사무관	양준혁	(044-203-6534)
	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수	(044-202-7269)
		담당자	사무관	진혜숙	(044-202-7274)

□ 다문화 아동·청소년 지원 : ('23)222억 원 → ('24)568억 원(증 346억 원)

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: ('23)62억 원 → ('24)64억 원(증 2억 원)

-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도사 인건비 3.3% 증액

② 취학 전·후 기초학습 지원 확대: ('23)31억 원 → ('24)67억 원(증 36억 원)

- 기초학습 지원 운영 센터 30개소 확대 및 사업대상 확대

* ('23) 138개소, 취학 전·초등 저학년 → ('24) 168개소,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

③ 다문화 청소년 정서·진로상담 확대: ('23)27억 원 → ('24)34억 원(증 7억 원)

- 정서·진로상담 운영센터 30개소 확대(113개소 → 143개소)

④ 이중언어 강점 개발을 위한 이중언어 학습 지원: ('23)35억 원 → ('24)57억 원(증 22억 원)

-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프로그램 확대

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설: ('24)168억 원(신규)

-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 초·중·고 자녀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교육활동비* 지원

* 초등 연 40만원, 중등 연 50만원, 고등 연 60만원

⑥ 다문화 학생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확대: ('23)67억 원 → ('24)156억 원(증 89억 원)

-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지원사업 인원을 두 배로 확대(4천명 → 8천명), 지원단가 인상(13,000원→15,000원)

⑦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 시범 실시: ('24)22억 원(신규)

- 폴리텍을 통해 기술, 한국어 등 다문화 아동·청소년 특화 직업훈련 시범 실시(200명)